

전북 바이오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북테크노파크, 미국서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 국제행사 참가해 KOREA Biohealth Hub 공동부스 운영

전북테크노파크가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산업 행사인 BIO USA에서 전북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산업 국제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에 참가해 KOREA Biohealth Hub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전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부스 운영은 해외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 연구기관, 병원 및 임상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기술력과 사업 협력 수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행사 기간 동안 공동부스에서 전북 바이오기업 소개



전북테크노파크는 2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산업 국제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에 참가해 KOREA Biohealth Hub 공동부스를 운영한다.

카드로그와 투자유치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관심 분야를 분석해 기업별 기술과 제품, 협력 희망 분야

를 소개하며 투자와 공동연구, 기술이전, 임상협력, 유통 OEM·ODM 등 다양한 후속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역 바이오기업인 플라스바이오, 아이메디텍, 메디사

파인스, 노보렉스, 바이오엘티, 유스바이오글로벌 등 6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AI 기반 신약개발과 비임상 연구 자동화, 정밀진단, RNA 치료제, 재생의료 및 의료기기,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선보인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이 바이오 연구개발(R&D)부터 비임상·임상, 제조 치료에 이르는 전주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며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행사 기간 동안 기업 카탈로그 배포와 투자·협력 상담, 관심 기업 매칭, 후속 미팅 연계 등이 진행되며,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장에서 확보한 상담 내용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별 후속 협력과 투자 연계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경영 우수기관 경쟁력 입증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경영 우수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으로, 공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성과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 사회적 책임 이행, 주요 정책 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역량과 공공서비스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연금개혁 지원과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금융운용 성과 및 위험관리 강화, ESG 경영 실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연금서비스 혁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AI 수어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의 상담과 연금 청구 편의성을 높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가입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연금 감액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에도 힘썼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운용 전략 다변화와 적극적인 투자 관리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인 18.82%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했다. 아울러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상근기자

수요기업 전략과제 해결할 유망 창업기업 모집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70개사 선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부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을 24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

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검증(RC)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외부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의 '전략과제 해결형'은

수요기업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이를 해결할 창업기업을 공개 모집해 협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과제별로 최대 1억4천만원의 협업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기업에는 최대 2억원 규모의 후속 협업 지원과 함께 중기부 기술개발(R&D) 사업 연계 기회도 제공된다.

연계 지원 사업으로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2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최대 2년간 6억원을 지원하는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창업기업 모집과 서류평가, 수요기업과의 미팅(Meet-up),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기술검증(RC) 등 협업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모집에서 30개사를 선발할 데 이어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총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3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6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선진사례 답사형 직무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23일 도내 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직무역량 특화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타 지역의 우수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북도 충주 시에서 진행됐다. 교육 주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로, 참석자들은 사

전북은행, 맞춤형 파킹통장 '씨드모아' 신상품 2종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고객의 예치금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파킹통장 상품을 선보였다.

전북은행은 23일 '씨드모아 소액우대 통장'과 '씨드모아 고액우대 통장' 등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금 규모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이면 서도 가입 후 3개월 동안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 1.8~2.0%의 기본금리를 제공해 폭넓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중소기업인대회 열려... 46명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6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6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형수 전북자치청장,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모범 중소기업인과 모범근로자 우수단체 등 총 46점의 정부 및 기관 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유한 책임회사 엔에이치네트웍스 이근신 대표이사(유)성원엘리베이터 양해정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영예를 안았다. /오상근 기자

세움종합건설, 전북 익산 펠리피아 이달 분양

익산 동부권 시대 문 활짝

세움종합건설(주)이 전북 익산시에 익산 펠리피아를 6월 분양한다고 밝혔다.

익산 펠리피아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팔봉동 18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8층 전용면적 84·104㎡,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 A 94가구 △84㎡B 289가구 △84㎡C 110가구 △104㎡ 79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팔봉동 일대는 익산 시내에서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인근에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익산점)가 202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익산 펠리피아는 호플러스 롯데마트 등 기존 도심의 쇼핑 시설과 함께 코스트코 생활권도 누릴 전망이다.

주변으로 다수의 산업단지(가)가 모여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단지 바로 앞 익산 제2발전소를 비롯해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주테크노밸리 등이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 반경 약 5km 거리에는 1만8천여 명 규모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식품

호남권 첫 코스트코

국식품 2단계 수혜 입지

새 평면·인테리어 적용

클러스터 2단계 사업(예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도 유입도 예상된다.

교통 여건은 무왕로, 선화로 등을 통해 익산 도심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익산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와 익산~포항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도 편리하다. KTX·SRT 익산역 등 광역교통망도 갖췄다.

교육환경은 팔봉초가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원광중, 원광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단지 앞 팔봉한솔공원을 비롯해 익산컨트리클럽 익산시중합운동장, 팔봉산 등 주변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또한 도심에 위치한 CGV와 익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도 이용 가능하다.

익산 펠리피아는 익산에서 보기 드문 설계가 적용될 계획이다. 우



익산 펠리피아 투지도

<사진=세움종합건설 제공>

선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 관상형 구조(일부 가구 제외)를 갖췄다. 내부에는 알파룸·2펜트리·2드레스룸 등 각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새로운 평면을 도입했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약 1.4대를 확보해 입주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익산 펠리피아는 익산 동부권의 비전을 공유하면서도 코스트코 입점 예정이라는 강력한 호재와 산업단지 배후 수요를 동시에 갖춘 단지"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정성까지 확보한 만큼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많은 선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 펠리피아의 시공은 세움종합건설(주)이, 시행은 (주)창조디앤씨가 맡았다.

전북자치도 중견 건설회사인 세움종합건설은 세움토건, 창대디앤씨,

왕성, 창조개발, 창조종합건설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건전한 기업문화와 결실한 재무구조, 30여 년간 축적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능력을 다져왔으며, 최고의 품질 추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움종합건설은 2022년 개발사업에 진출한 이후 '펠리피아' 브랜드를 통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전 유성, 내포신도시, 당진 수정지구, 반월 1·2·3차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전북을 넘어 2024년에는 충남 계룡시 업무에서 전용면적 76~104㎡, 총 8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했으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80%의 분양률을 기록하며 막바지 분양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주지역 자체사업을 비롯해 천안 등 타 지역에서도 가로주택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 진출하며 공동주택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익산 펠리피아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215-3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6월 중 오픈 예정이다.